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대양전기공업(108380)

운송장비·부품

요약

기업현황

시장동향

기술분석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주)NICE디앤비

작성자

하상수 연구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2-13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전기공업(108380)

조선, 방산 부품 전문기업에서 자동차 센서분야로 역량 강화

기업정보(2022/04/18 기준)

대표자	서영우
설립일자	1988년 07월 01일
상장일자	2011년 07월 08일
기업규모	중견기업
업종분류	선박 구성 부품품 제조업
주요제품	해상용 조명등기구, 함정용 전자시스템, 배전반, 압력센서

시세정보(2022/04/18 기준)

현재가	15,800원
액면가	500원
시가총액	1,512억 원
발행주식수	9,567,333주
52주 최고가	22,700원
52주 최저가	13,750원
외국인지분율	1.29%
주요주주	
서영우 외 3인	60.08%
국민연금공단	5.07%

■ 조선·방위산업부터 철도·자동차산업까지 아우르는 제조기업

대양전기공업(이하 동사)은 산업용 조명, 전자시스템, 배전반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88년 7월 설립되어 2011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다. 43년의 업력을 가진 동사는 조선산업 조명분야의 선두주자로, 군함, 잠수함에 필요한 전자시스템, 전기시스템 분야의 전문기업으로 발전하였고, 지금은 자동차용 압력센서까지 사업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특히, 동사는 조선산업용 특수 조명기기 개발 및 공급을 통해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선박용 조명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동사는 100% 지분을 보유한 중속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30년 이상의 방위산업 업력을 보유하고 있다.

■ 매출의 중심이 되는 선박용 조명 및 배전반 시장의 지속 성장세

동사는 국내 선박용 조명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외 조선기자재 시장의 규모는 지속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동사의 매출 성장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선박용 조명기구 출하금액 규모와 조명기구에 이은 주요사업 중 하나인 배전반류 시장 규모의 증가세도 동사의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자동차용 압력센서를 통한 사업 다각화

동사는 2007년부터 신사업의 일환으로 자동차산업의 압력센서 모듈 개발을 진행하여 MEMS(Micro-Electro Mechanical System, 미세전자제어기술) 등의 핵심기술을 확보하였으며, ESC(Electronic Stability Control) 시스템에 적용되는 압력센서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하여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현재 동사가 개발한 ESC 시스템용 압력센서는 국내외 완성차업체에 납품되고 있으며, 수소차량용 탱크 및 스택(Stack)에도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9	1,769.2	43.9	148.6	8.4	125.0	7.1	6.2	4.9	25.2	1,306	22,186	10.6	0.6
2020	1,891.6	6.9	163.0	8.6	138.3	7.3	6.5	5.4	16.0	1,446	23,584	10.7	0.7
2021	1,366.0	-27.8	72.6	5.3	88.4	6.5	4.0	3.4	14.7	924	24,321	16.2	0.6

기업경쟁력

국내 선박용 조명 시장점유율 1위

- 43년의 업력을 보유한 선박용 조명산업 기업
- 방폭등, 안전유도등 등 다양한 조선산업용 조명기구 연구개발 지속 중
- 국내 조선사를 대상으로 장기간 신뢰 축적

30년 이상 방위사업 영위 중

- 100% 지분 보유한 종속회사를 통한 방위사업 영위
- 통신-전자-전기시스템, 무인잠수정, 잠수함용 연속전지 등 해군 연관사업 경쟁력 보유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동사 산업별 주요제품

조선산업	철도산업
선박용 조명	배전반
방위산업	자동차산업
함내외 통신시스템 배전반류의 전기시스템 무인잠수정 잠수함용 연속전지	ESC용 압력센서 수소차 수소탱크 압력센서 수소차 스택용 압력센서

주요 매출실적

(단위: 억 원)			
매출유형	2019년	2020년	2021년
조명	667.6	628.2	516.9
전자시스템	520.0	696.2	285.0
전기시스템	322.0	310.0	298.3
잠수함용 축전지	225.7	210.6	174.4
기타	33.9	46.6	91.4
합계	1,769.2	1,891.6	1,366.0

시장경쟁력

국내 조선기자재 시장 규모

연도	시장규모	성장률
2017년	1조 2,987억 원	연평균 1.18% ▲
2022년(E)	1조 3,774억 원	

국내 선박, 철도, 항공기용 조명기구 출하금액 규모

연도	규모	성장률
2019년	1,376억 원	연평균 1.80% ▲
2024년(E)	1,504억 원	

자동차용 압력센서를 통한 매출 다각화

- 신성장동력으로 자동차산업의 압력센서 개발
- 국내 최초 ESC 시스템용 압력센서 국산화한 기술력
- 신규 수익 창출을 위한 중앙연구소 신축 진행 중
- 수소차량용 탱크 및 스택 등 사용범위 확대 중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E

(환경경영)

- 동사는 담당조직 및 회의체를 중심으로 환경현황 및 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는 시스템(임직원 교육 등)을 구축하여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을 취득하였음.
- 동사는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제품의 개발 및 생산과정에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최근 1년 이내 환경 법규 위반으로 벌금, 과태료, 행정명령을 받은 적이 없음.

S

(사회책임경영)

- 동사는 학점 이수관리제도 등의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임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리더쉽, 직무 전문성이 향상된 인재를 육성하고 있음.
- 동사는 남성 대비 여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약 75.8%로 산업평균인 71.1%를 상회하는 수준이고, 동사의 남성 대비 여성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비율이 81.6%로 산업평균인 72.1%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동사는 성별에 따른 고용평등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G

(기업지배구조)

- 동사는 경영진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상근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공개하여 기업공시제도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
- 동사는 배당금 지급제도 및 서면투표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주주친화활동을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됨.

NICE디앤비의 ESG 평가항목 중, 기업의 ESG 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활동 현황을 구성

I. 기업현황

조선·방산산업 조명, 전장 전문기업, 자동차 압력센서로 사업 다각화

동사는 조선산업, 방위산업, 철도산업에서 조명등, 전자·전기시스템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미래성장 동력으로 자동차용 압력센서 사업도 추진 중이다.

■ 기업개요 및 주요주주

동사는 조명, 전자시스템, 전기시스템, 수중로봇, 압력센서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중견기업으로, 1988년 7월 설립되었으며, 2011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동사는 조선산업 조명 분야의 선두주자로, 군함, 잠수함에 필요한 전자·전기시스템 분야의 전문기업으로 발전하였고, 지금은 자동차용 센서까지 사업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동사의 사업 부문은 크게 조선산업, 방위산업, 철도산업, 자동차산업으로 구분되며, 제품은 조명, 통신시스템, 전자시스템, 전기시스템, 배전반류, 수중로봇, 압력센서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동사의 종속회사인 한국특수전지(주)는 방위산업 분야의 매출이 100%를 차지하며, 잠수함용 축전지 제조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동사의 최대주주는 서영우 대표이사로 59.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 주요주주로 국민연금공단(5.07%), 김재율(0.52%), 김동순(0.11%) 등이 있다.

[그림 1] 동사 연혁



*출처: 동사 IR자료(2020)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기준, 동사의 연구개발 인력은 85명이며, 연구 분야는 크게 전기·전자, 조명, 센서로 구성되어 있다. 동사의 2021년 연구개발비는 매출액 대비 6.3%로

나타났으며, 동사는 국내 최초로 6,000M급 심해 무인잠수정의 개발, 함내외 통합 통신체계의 국방규격 획득, 압력센서 개발 등의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 성장을 위한 기술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가고 있다.

[표 1] 동사 연구개발비용 (단위: 억 원)

과 목	2021년	2020년	2019년
동사 연구개발비 (매출액 대비 비율)	75.6 (6.3%)	76.8 (4.6%)	76.1 (4.9%)
중속회사 연구개발비 (매출액 대비 비율)	1.2 (0.7%)	1.0 (0.5%)	0.9 (0.4%)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표 2] 동사 연구개발 조직 구성

부서명	분야	수행 업무
1연구소1팀	전기 전자	항해 통신장비 개발, 방위사업 관련 통신장비 개발
1연구소2팀		수중, 해양 관련 (방위산업 포함) 장비 개발
2연구소1팀	조명	LED / 방폭등 등 조명의 신규 제품 개발
2연구소2팀		조명 분야에 디자인을 반영하여 시너지 창출
센서	센서	압력센서 개발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 주요제품

동사의 주요제품은 사업 부문별로 나누어지는데, 조선산업 분야 주요제품으로는 선박용 조명, 전자시스템, 선박용 배전반 등이 있으며,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전자시스템, 배전반, 조명, 잠수함 축전지 등을 군에 공급하고 있다. 또한, 동사의 철도산업 분야 주요제품으로는 배전반, Jumper류(객차간 전력을 연결하는 장치류), 철도차량용 LED조명 등이 있으며, 신사업 분야인 자동차산업에서는 자동차용 압력센서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

[표 3] 동사의 사업별 주요제품

조선산업	방위산업	철도산업	자동차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박용 조명 전자시스템 선박용 배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함내외 통신시스템 배전반류의 전기시스템 무인잠수정 잠수함용 축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전반 Jumper류 철도차량용 LED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C용 압력센서 수소차 수소탱크용 압력센서 수소차 스택용 압력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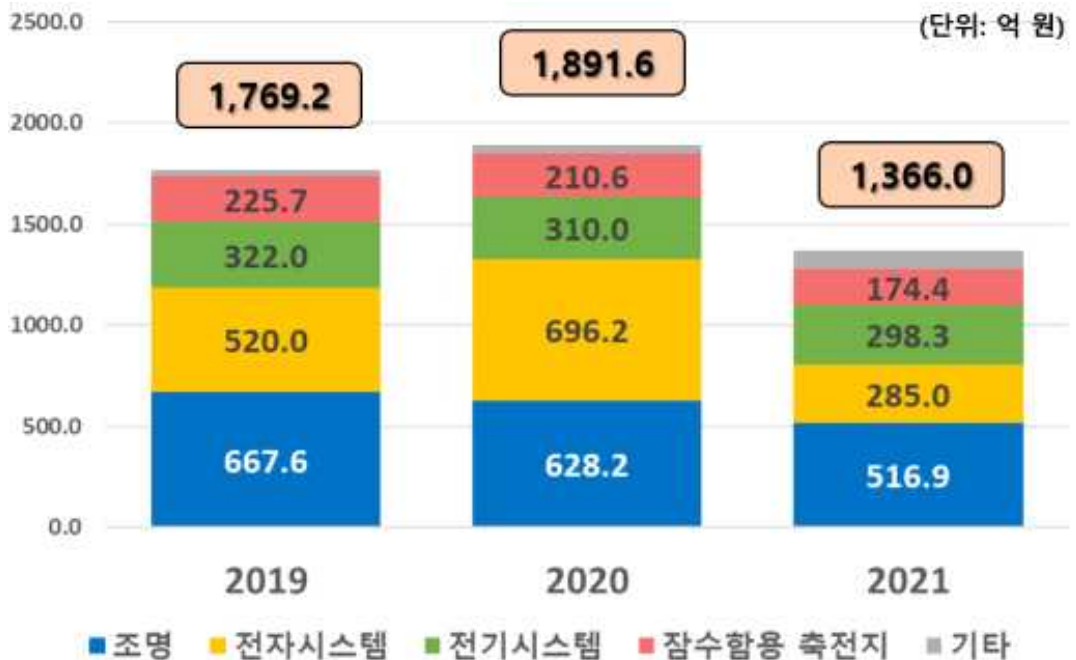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및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구성

■ 최근 3개년 매출 현황

동사의 사업보고서(2021.12)에 의하면, 매출제품 품목은 조명(LED조명, 방폭조명, 기타), 전자시스템(선박용 항해통신장비, 냉동컨테이너 모니터링시스템 등), 전기시스템(선박용 배전반, 철도차량용 배전반 등), 잠수함용 축전기, 기타로 나누어지며, 그중 잠수함용 축전기 품목은 동사 종속회사(한국특수전지주)의 매출이다. 동사의 매출액은 2019년 1,769.2억 원, 2020년 1,891.6억 원, 2021년 1,366.0억 원의 추이를 나타냈으며, 조명 및 전자·전기시스템 품목이 동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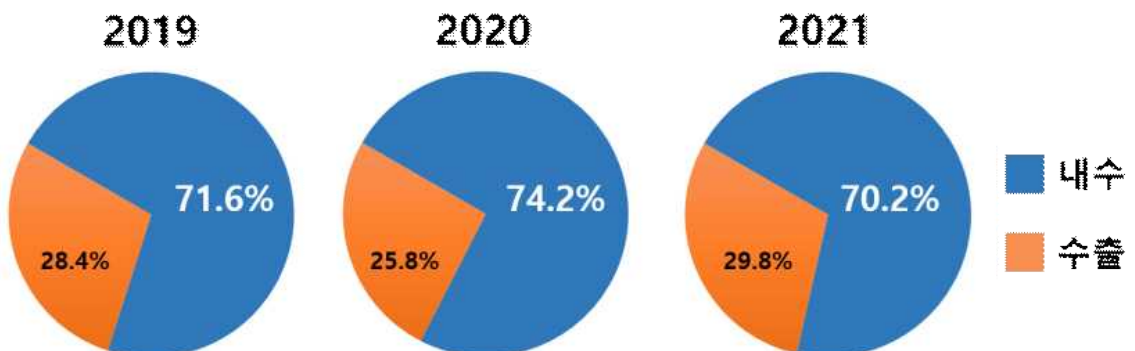
또한, 종속회사의 매출(내수 100%)을 포함한 동사 매출액 중 내수 비중은 2019년 71.6%, 2020년 74.2%, 2021년 70.2%로 최근 3개년 모두 수출 대비 내수의 점유율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동사의 사업부문별 매출 현황(연결 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그림 3] 동사의 매출 기준 내수/수출 비중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 동사의 ESG 활동



동사는 환경(E) 부문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환경정책을 수립하여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제품의 개발 및 생산과정에서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 또한, 담당조직 및 회의체를 중심으로 환경현황 및 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는 시스템(임직원 교육 등)을 구축하여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을 취득하였다. 구체적으로, 동사는 기후변화의 주요인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을 기반으로 다양한 규정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 및 가격 책정 등의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사업장 급수원인 용수 절약 및 폐수 배출량 저감을 위한 사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수 및 폐수 배출량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함으로써 최근 1년 이내 물 관련 환경 법규 위반으로 법적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 또한, 동사는 폐기물 저감 및 자원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협력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근 1년 이내 폐기물 관련 환경 법규 위반으로 벌금, 과태료, 행정명령 등을 받은 적이 없다. 또한, 동사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의 배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최근 1년 이내 대기 관련 환경 법규 위반으로 벌금, 과태료, 행정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 이외에도, 동사는 임직원의 다회용 컵 사용을 장려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매월 모니터링하고 노후화된 설비는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등 근무환경 내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동사는 사회(S) 부문에서 기술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로 사회 및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 회사와 임직원이 함께 성장하며 발전하는 기업문화 조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사는 학점이수관리제도 등의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임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리더쉽, 직무 전문성이 향상된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경조금 지급, 학자금 지급, 의료비 지급, 사내 동호회 활동 지원비 지급, 법률상담, 통근버스 지원, 유연근무제, 가족 돌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여름 휴가비 지급 등 다양한 복리후생을 도입하여 임직원의 복지를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동사는 임직원들의 노력에 따른 합리적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성과 인센티브제도, 우리사주제도, 정기포상제도, 수시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임직원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

한편, 동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사업장 환경을 조성하여 직원의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보건 정책을 수립하고 안전보건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여 근무환경 내에서 잠재적인 안전위험도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모든 임직원들에게 보호장구 지급, 화학물질 및 유해물질 관리, 안전보건 정기교육, 장비 안전성 정기검사, 의무적인 건강체크 등을 실시하여 ISO45001(보건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고, 2020년에는 무재해 사업장을 달성하였다.

동사는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소음진동관리 지침서 수립, 직무 스트레스 평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원칙 규정, 고충처리부서 운영 등을 통해 임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동사는 사업의 이익과 성장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소외계층 등을 위해 사내 여직원 단체인 ‘한아름회’를 통해 인근의 노숙인 복지시설 마리아마을과 결연을 맺고 매년 명절과 연말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사내 봉사단체인 ‘대양사랑나눔회’를 통해 매년 장애인 재활 시설을 찾아가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는 등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외에도, 동사는 설립 이후 고객에게 만족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품질개선활동을 수행하여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DQMS(국방품질경영시스템), IATF16949(자동차 품질경영시스템), ISO/TS 22163(국제철도산업 품질경영시스템)을 취득한 바 있으며, UL인증, CE인증 등을 취득하여 품질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동사의 사업보고서(2021.12)에 의하면, 동사의 전체 직원 중 비정규직 비율은 1.4%로 대부분의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한편, 동사는 남성 대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약 10.4%로 고용노동부 자료(2021.02)에 따른 동 산업(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평균 여성 근로자 비율인 11.2%를 하회하는 수준이나, 동사의 남성 대비 여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약 75.8%로 산업평균인 71.1%를 상회하는 수준이고, 동사의 남성 대비 여성 근로자 평균 근속연수 비율이 81.6%로 산업평균인 72.1%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동사는 성별에 따른 고용평등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4] 동사 근로자의 정규직 수 및 근속연수

성별	직원수(명)			평균근속연수(년)		1인당 연평균 급여액(백만원)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합계	동사	동 산업	동사	동 산업
남	321	5	326	13.1	11.1	53	50
여	38	0	38	10.7	8	40	36
합계	359	5	364	-	-	-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2021.02),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지배구조(G) 부문에서 투명하고 적법한 기업윤리를 실천하기 위해 윤리지침을 수립하고, 내부고발 시스템, 윤리경영 서약서, 윤리경영 교육 등을 수행하여 임직원들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또한, 동사는 정보보안 및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부정보관리 규정, 보안관리 규정, 방위산업 기술보호 규정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임직원 정보보호교육(수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기술보호 실태조사(매년 1회), 익명성 보장 신고 시스템 등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점진적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사업보고서(2021.12)에 의하면, 동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선임된 상근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사는 감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경영기획실)을 구성하여 감사가

독립된 위치에서 회계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동사의 최대주주는 대표이사 서영우이며, 동사의 지분 59.34%를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홈페이지에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공개하여 상장기업으로서의 기업공시제도 의무를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동사는 주주친화활동으로 배당금 지급제도(최근 3년간 평균 배당수익률 1.4%)와 서면투표제도(제33기 정기주총에서 실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사회		감사		주주	
사내/사외/기타비상무	2/1/0	회계 전문성	○	최대주주 지분율	59.34
사외이사 재직기간	12년	특수관계인	-	소액주주 지분율	30.57
사외이사 지원조직	-	내부통제 제도	-	3년 이내 배당	○
사외이사 교육	-	감사 지원조직	○	의결권 지원제도	○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II. 시장동향

산업용 특수 조명기기 및 배전반 시장의 지속 성장세

동사의 주요 매출은 조선·방위·철도산업용 특수 조명기기 및 전기·전자시스템에서 발생하므로 산업용 조선기자재 및 배전반 시스템 관련 시장의 성장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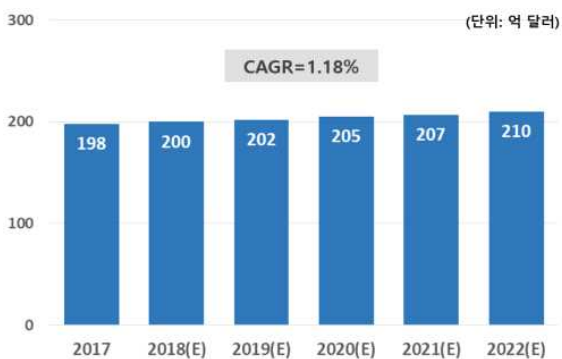
■ 전기·전자분야 조선기자재 및 산업용 조명기구 시장동향

조선산업은 컨테이너선, 벌크선, 가스운반선, 오일운반선, 특수선, 여객선 등의 선박을 건조하는 산업으로,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종합산업이며, 높은 기술수준을 필요로 하고, 대형건조 설비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다.

전기·전자 관련 조선기자재는 선박 운항 시 필요한 시스템과 보조기기 등의 부품 및 장비를 말하며, 크게 조명장치, 동력장치, 배선장치, 통신장치, 제어장치 등으로 분류된다. 동사는 조선산업에서 조명장치와 제어장치, 통신장치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선박용 조명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동사는 높은 기술력, 시장선점 효과, 43년의 오랜 업력을 통해 구축된 신뢰와 다양한 종류의 제품군 보유 등의 경쟁우위 요소를 바탕으로 국내 선박용 조명 분야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조선기자재 시장 규모는 2017년 198억 달러를 형성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CAGR) 1.18%로 성장하여 2022년 210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국내 조선기자재 시장 규모는 2017년 1조 2,987억 원을 형성하였으며, 1.18%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2년 1조 3,774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 글로벌 조선기자재 시장 규모



*출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NICE디앤비 재구성

[그림 5] 국내 조선기자재 시장 규모



*출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NICE디앤비 재구성

선박, 철도, 항공기용 조명기구 시장은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에 해당하며, 그중 선박 조명기구는 방폭등, 안전유도등, 방향지시등, 객실등 등이 있다. 운송장비용 조명기구 산업은 제품의 사용주기가 길고, 기술집약적 산업의 특성을 가진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국내 선박, 철도, 항공기용 조명기구 출하금액 규모는 2019년 1,376억 원을 형성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 1.80%로 성장하여 2024년 1,504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6] 국내 선박, 철도, 항공기용 조명기구 출하금액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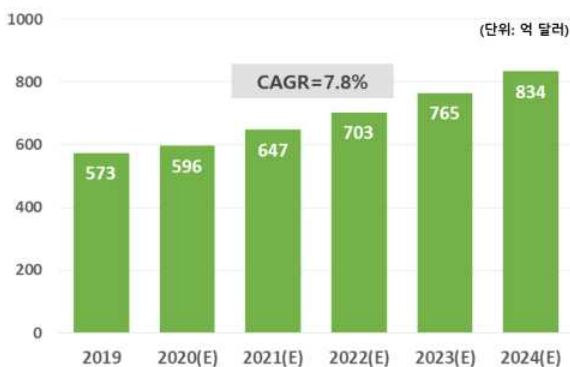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NICE디앤비 재구성

■ 국내외 산업용 배전반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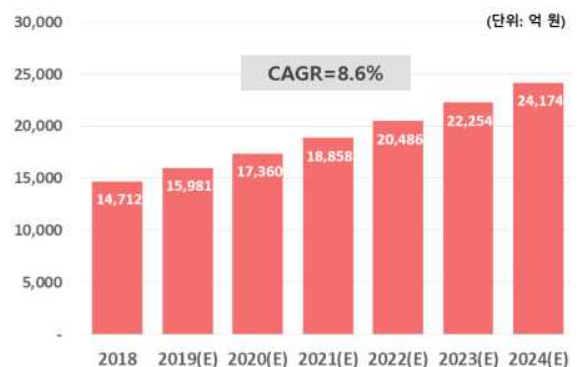
선박용 조명기구에 이은 동사의 주요 매출처 중 하나는 조선·방위·철도산업용 배전반류이다. 배전반은 발전소·변전소 등의 운전이나 제어, 전동기의 운전 등을 위해 스위치·계기·계전기 등을 일정하게 넣어 관리하는 장치를 의미하며, 발전/변전 설비, 산업플랜트, 빌딩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발전소, 산업플랜트, 지하철·철도·공항 등의 교통 인프라에서는 설치 면적의 축소와 유지 보수 효율화를 위해 최근 배전반을 컴팩트화하는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그림 7] 글로벌 배전반 시장 규모



*출처: MarketsandMarkets(2020), NICE디앤비 재구성

[그림 8] 국내 배전반 시장 규모



*출처: MarketsandMarkets(2020), NICE디앤비 재구성

글로벌 시장조사기관(MarketsandMarkets)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배전반 시장 규모는 2019년 573억 달러를 형성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 7.8%로 성장하여 2024년 834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내 배전반 시장 규모는 2018년 1조 4,712억 원을 형성하였으며, 8.6%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4년 2조 4,174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경쟁사 현황

동사는 선박용 특수 조명기구 시장점유율 국내 1위 기업이며, 대부분의 국내 조선사는 동사의 선박 조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시장 인지도와 지배력은 오랜 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사는 사업분야가 다양하여 경쟁사를 특정하기 쉽지 않지만, 선박용 조명장치 및 제어장치 관련 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국내 경쟁사로 극동일렉콤(주)가 있다.

[표 6] 국내 조선기자재 공급 경쟁사 현황

회사명	설립일	주요 사항
동사	1988년 0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박용 특수 조명기구 국내시장 1위 조선/철도산업용 배전반 제조 및 판매
극동일렉콤(주)	1992년 0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박, 철도차량용 조명기구 제조업체 배전반 등의 전기·전자 기계장치 및 전장품 제조

*출처: 각 사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구성

Ⅲ. 기술분석

매출의 중심인 조선·방위산업 기술 및 자동차산업 신성장동력 확보

동사는 높은 시장점유율의 선박용 조명산업 및 100% 지분의 종속회사를 통한 방위산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매출의 대부분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신성장동력으로 자동차산업 압력센서 모듈 사업을 추진하여 매출 다변화를 시도 중이다.

■ 다년간 구축해온 조선·방위산업 기자재 기술력

동사는 제품 품질의 증명이 중요한 조선산업에서 국내 조선소가 요구하는 모든 종류의 선박용 인증(진동, 충격, 항온항습 등)을 획득하여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왔으며, 조명, 전자시스템, 선박용 배전반 등의 다양한 제품군 공급이 가능한 점이 경쟁사 대비 우위성을 갖기 때문에 국내 선박용 조명시장에서 점유율 90%(글로벌 시장 33%)의 압도적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 동사가 국내 대부분의 조선사를 상대로 오랜 기간 쌓아온 인지도와 신뢰로 인해 앞으로도 안정적인 거래관계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9] 동사의 선박용 조명기기



*출처: 동사 IR자료(2020)

2020년 7월 동사는 헬리콥터 착륙장(Helideck)에 적용될 항공등화 ‘Helideck Lighting System’을 개발 및 출시하여 신기술 인증을 받았다. 동사가 개발한 헬기 착륙장용 조명기구는 DLS(Dual Lighting System) 기술이 적용되어 비교적 수명이 더 길고(DLS가 적용되지 않은 등기구 대비 2배 이상), 고장 방지기능으로 등기구의 수명 말기나 단일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동작이 가능해 안전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동사는 이번 Helideck Lighting System의 개발 및 국산화 성공을 통해 국내외 기술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그림 10] 동사의 신제품 Helideck Lighting System

- More Safe

이 고장 방지 DLS 등기구는 수명 말기나 단일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동작이 가능하여 보다 안전함.
- More Life-time

이 고장 방지 DLS 등기구들은 평상시 동작하는 광원과 고장이나 수명 말기에 동작하는 추가의 광원을 가지고 있다. 이는 DLS가 적용되지 않은 등기구에 비해 2배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
- Less Operating Cost

이 고장 방지 DLS 등기구는 DLS가 적용되지 않은 등기구에 비해 더 많은 LED와 안정기를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DLS 등기구가 그렇지 않은 등기구에 비해 더 비싸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10년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비교한다면, DLS 등기구는 non-DLS 등기구에 비해 약 40% 적은 총 사용비용이 소요된다.
- More Reliable

DLS 등기구는 각 회로, 각 회로의 사용 시간, 통신 상태, 공급 전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보다 믿을 수 있으며, 유지 보수가 필요한 시점을 예상하여 유지 보수에 필요한 수량을 확보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출처: 동사 IR자료(2020)

또한, 동사는 1990년에 방위사업체로 지정된 이후 30년 넘게 방위사업을 영위 중이며, 주로 함내외 통신시스템, 전자·전기시스템, 배전반, 무인잠수정, 잠수함용 연축전지 등을 군에 납품하고 있다. 특히, 동사가 개발한 무인잠수정은 초고압, 암흑 등 인간이 직접 작업할 수 없는 심해의 극한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수중 로봇시스템이며, 전 해양의 95% 이상 탐사가 가능한 세계 4번째의 6,000m급 심해잠수정이다. 앞으로 동사는 독자적인 수중 장비 개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심 및 수중환경에서 작업이 가능한 수중 장비와 수중 로봇 개발을 수행하여 해양자원 및 해양에너지 개발에 앞장설 계획이다.

[그림 11] 동사의 방위산업 관련 통신·전자·전기시스템 및 무인잠수정

▶ 통신, 전자, 전기, 무인잠수정

종류

ICS
함내외 통합 통신체계

DICS
대양 함내외 통합 통신체계

WIRAS
원거리통신 통신체계

EM-LOG
전자기록 검색 역경감자

ECDIS
전자해도 정보시스템

DRT
정황추적 방법장치

Switchboard & Console

UUV

MDV

RCMS

STC

*출처: 동사 IR자료(2020)

■ 압력센서 분야 진출을 통한 사업 다각화 및 역량 강화

동사는 2007년부터 선박용 압력센서를 생산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MEMS 기술, SoC(System on Chip) 설계와 같은 핵심기술을 확보함으로써, ESC(차량의 제동력 제어) 시스템에 적용되는 압력센서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하여 동사의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MEMS 센서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가전, 의료기기, 플랜트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정밀 계측용으로 사용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동사의 자동차 분야 신사업에서 주요한 성장동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동사는 MEMS 기반 센서 모듈 개발을 통한 신규 수익 창출을 위해 서울 마곡에 중앙연구소를 준공하였다.

[그림 12] 동사의 자동차용 압력센서 개발 및 응용

▶ MEMS 기술 기반 자동차용 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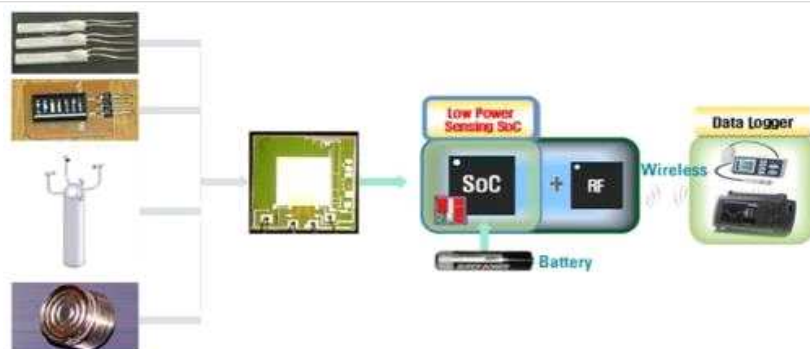
- 마이크로 시스템, 마이크로 머신, 마이크로 메카트로닉스 등 초소형 시스템 및 초소형 기계
 -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ESC*탑재 의무화
- * ESC: Electronic Stability Control System



*출처: 동사 IR자료(2020)

동사가 개발한 자동차 주행안정성 제어장치인 ESC 시스템용 압력센서 모듈은 각 바퀴의 제동력과 구동력이 독립적으로 제어가 되도록 구성되어 있고, 스티어링휠 각고, 브레이킹 압력, 차량속도 등을 감지 및 조절하므로 ABS(Anti-lock Brake System), TCS(Traction Control System)에 기본으로 사용된다. 현재 동사 신사업 분야의 압력센서는 국내외 완성차에 납품되어 ESC 센서로 사용되고 있으며 수소차량용 탱크와 스택에도 사용이 확대되고 있어 수소에너지 사용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그림 13] 동사의 복합센서 구성



*출처: 동사 홈페이지

또한, 동사는 온도, 습도, 풍향, 압력의 다른 특징과 기능을 발휘하는 센서를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서 복합적인 성능을 발휘하도록 구성하는 초소형 복합센서 및 SoC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초소형 복합센서는 전력소모를 최소화하는 지능형 멀티센서로서 신호처리/프로세서 및 Wireless SoC화 하도록 개발을 진행 중이다.

■ SWOT 분석

[그림 14] SWOT 분석



IV. 재무분석

2021년 외형감소 나타냈으나, 수익성은 업계 평균 이상 나타내며 흑자경영 유지

동사는 2021년 방위사업부로부터의 수주 확보 미진으로 다소 큰 폭의 매출 외형감소를 나타냈으나, 전반적인 수익성은 외형감소에 따른 영업수익창출력 저하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원가관리로 일정 수준 이상은 유지하며 흑자기조를 지속하였다.

■ 주력 부문인 조선산업 및 방위산업이 대부분의 실적 비중을 차지

동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제품별 매출 비중으로는 조명등기구류 37.8%, 차량용 배전반, 전자통신장비 등의 전기·전자시스템 49.4%, 잠수함용 연축전지 및 부품류 12.8%를 각각 차지하였고,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으로는 조선산업 및 방위산업이 2019년, 2020년, 2021년 각각 88.7%, 89.6%, 84.4%로 상기 두 주력 사업부문이 여전히 동사 매출 대부분을 견인하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21년 방위산업 부문 내 대형 프로젝트 마무리로 큰 폭의 외형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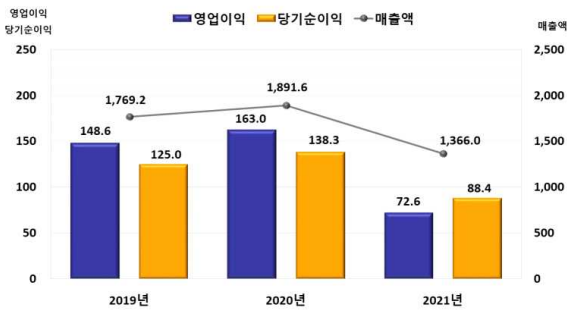
2018년 신규수주하였던 방위산업청 주관의 460억 원 규모 무인기뢰처리기 공급으로 2019년 전년 대비 43.9% 증가한 1,769.2억 원, 2020년 전년 대비 6.9% 증가한 1,891.6억 원을 기록하며 외형성장세를 지속하였으나, 2021년에는 2020년 내 상기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이후 연속적인 수주사업을 확보하지 못해 전년 대비 27.8% 감소한 1,366.0억 원을 기록하며 외형감소를 나타냈다.

■ 2021년 외형감소에 따른 고정성 경비 부담 가중으로 수익성 일부 저하되었으나, 효율적인 원가관리로 여전히 업계 평균 이상의 수준 유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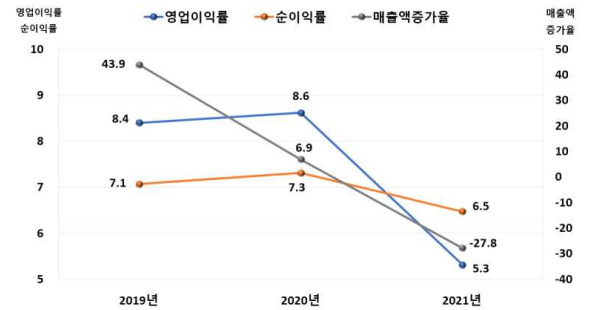
2019년, 2020년, 2021년 매출원가율은 각각 85.5%, 85.9%, 86.2%를 기록하며 85~86%대의 일정 수준을 지속한 가운데, 2019년 및 2020년 8%대의 영업이익률과 7%대의 순이익률을 유지하였으나, 2021년 들어 큰 폭의 외형감소로 인해 급여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판관비 부담이 가중된바, 영업이익은 72.6억 원(-55.5% YoY), 매출액영업이익률은 5.3%(-3.3%p YoY)를 기록하며 영업수익성이 저하되었고, 당기손익 -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이익의 계상 등으로 순이익 및 매출액순이익률은 각각 영업이익과 매출액영업이익률보다는 높은 88.4억 원(-36.1% YoY) 및 6.5%(-0.8%p YoY)를 기록하였으나, 이 또한 전년 대비하여서는 감소한 수준으로 전반적인 수익성이 저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일정 비율을 유지하며 효율적인 원가관리가 이루어진바 여전히 업계 평균 수준 이상의 수익구조를 지속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15] 동사 연간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추이



증가율/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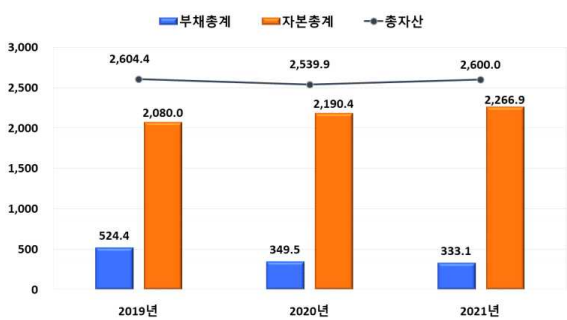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 지속적인 흑자경영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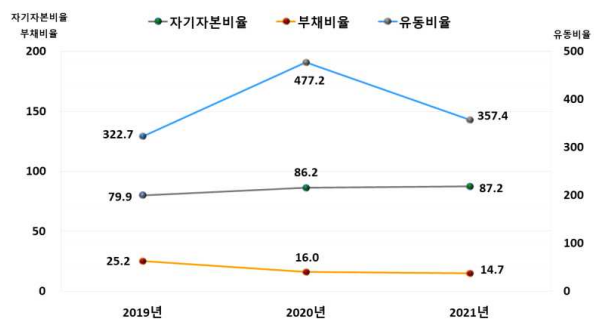
오랜 기간 흑자경영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2019년, 2020년, 2021년 부채비율이 각각 25.2%, 16.0%, 14.7%를 기록하며 전반적인 부채부담이 미미한 수준을 나타냈고, 무차입경영기조를 지속하고 있는바 최근 3개년간 매우 양호한 재무구조를 견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3개년간 유동비율도 300%를 초과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유동성도 대체로 우량한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16] 동사 연간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산/부채/자본 비교



자본구조의 안정성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NICE디앤비 재구성

■ 경쟁사 재무분석

2021년 기준 동사의 매출액은 1,366.0억 원이며, 매출액영업이익률이 5.3%이다. 동사의 경쟁업체인 극동일렉콤(주)는 현재 공개된 2021년 결산 자료가 없어 재무비교가 어려우며, 2020년 결산 기준으로 극동일렉콤(주)의 매출액은 24.2억 원이며, 매출액영업이익률이 -83.4%로 나타났다.

[표 7] 동사 연간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19년	2020년	2021년
매출액	1,769.2	1,891.6	1,366.0
매출액증가율(%)	43.9	6.9	-27.8
영업이익	148.6	163.0	72.6
영업이익률(%)	8.4	8.6	5.3
순이익	125.0	138.3	88.4
순이익률(%)	7.1	7.3	6.5
부채총계	524.4	349.5	333.1
자본총계	2,080.0	2,190.4	2,266.9
총자산	2,604.4	2,539.9	2,600.0
유동비율(%)	322.7	477.2	357.4
부채비율(%)	25.2	16.0	14.7
자기자본비율(%)	79.9	86.2	87.2
영업현금흐름	53.2	-3.9	105.3
투자현금흐름	-54.4	-119.4	-156.2
재무현금흐름	-2.1	-4.3	19.9
기말 현금	545.1	415.7	384.4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1.12)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주요사업의 업황 회복과 센서사업부의 성장을 통해 실적 개선 전망

국내 조선산업의 회복세를 바탕으로 동사 영업의 주축인 조선사업부의 뚜렷한 실적 개선이 예상되며, 이와 더불어 조선기자재 중심에서 압력센서 위주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성장 모멘텀이 큰 센서사업부의 확대를 도모하여 전반적인 외형 회복 및 성장세가 전망된다.

■ 조선사업부 실적 반등을 통한 뚜렷한 회복세 기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조선업 수주 실적이 1,744만 CGT(표준선 환산톤수)로 2013년(1,845만 CGT) 이래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2020년(823만 CGT)보다 2배 이상 큰 규모이자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인 2019년(958만 CGT)보다 85% 증가한 실적이다. 또한, 전 세계 발주량 대비 국내 조선사의 수주비율 역시도 2019년, 2020년, 2021년 각각 31.2%, 34.1%, 37.1%로 매해 점유율 확대 추이를 보인바, 장기간의 산업 침체기를 벗어나 재도약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내 조선업 수주 활황 기조와 더불어 선박용 조명시장 내 압도적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동사가 공급하는 선박용 특수 조명기기 제품 납품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센서사업부 성장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동사의 기존 주요 사업부인 조선·방위산업은 수주산업 특성으로 인해 업황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 동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성과 지속성을 겸비한 신성장동력으로 2007년부터 10여 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국내 최고 수준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MEMS 기반 센서 개발에 성공하였다. 동사가 자체적으로 개발 완료하여 판매하고 있는 센서는 ESC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 수소연료 전기차량용 탱크와 스택에도 동사가 공급하는 MEMS 센서가 채용되고 있어 향후 수소연료전지 생태계 성장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7] 동사의 사업 다각화를 통한 매출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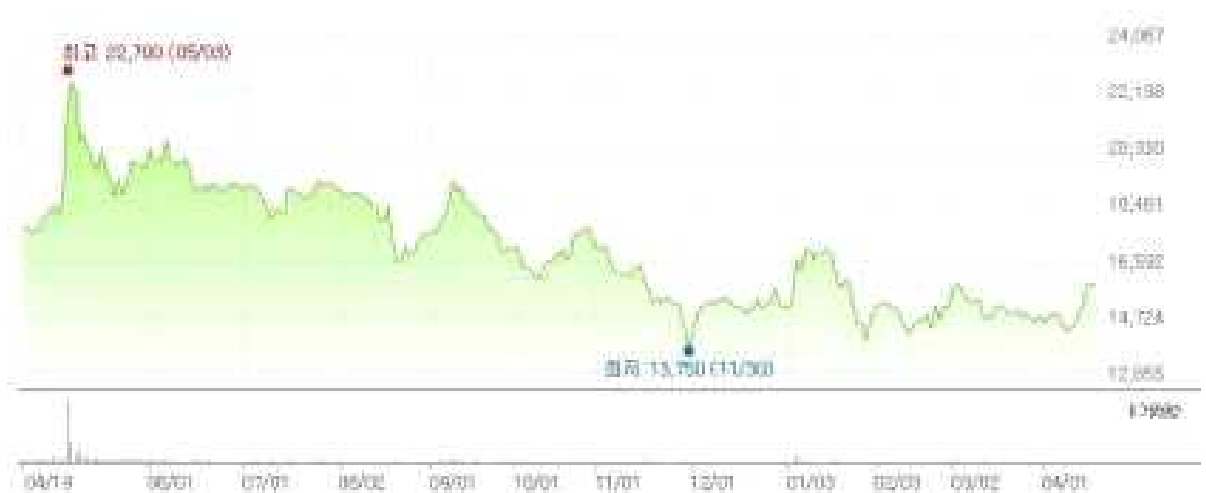
*출처: 동사 IR자료(2020)

■ 증권사 투자 의견

작성기관	투자 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IBK 투자증권	Not Rated	-	2021.0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글로벌 조선 산업은 한, 중, 일 빅3에서 한, 중 빅2로 재편되고 있으며, 국내 조선3사의 수주 활황으로 동사 조선사업부 또한 2021년 연말을 기점으로 확인한 개선세를 보일 전망. ■ MEMS 센서 개발을 통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였고, 자동차용 ECS 센서와 수소탱크 및 연료전지 스택에도 활용되고 있는바, 향후 수소 생태계 확대에 따른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 2021년 전망치는 개별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469억 원(-12.6% YoY)으로 추정 		
하이 투자증권	Not Rated	-	2021.05.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용 압력센서 생산 기술력을 기반으로 MEMS 기술 및 SoC 설계 기술과 같은 핵심 기술 확보. 자동차용 센서 관련 매출은 2020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 압력센서의 국산화 확대 및 수소차 시장 성장 등으로 관련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21년부터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될 것으로 전망. ■ 2021년 전망치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752억 원(-7.4% YoY), 영업이익 150억 원(-8.0% YoY)으로 추정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그림 18] 동사 1개년 주가변동 현황



*출처: 네이버금융(2022.04.18 기준)